

성전의 허상을 깨자

성경말씀: 렘7:1-12, 17-18, 32-34

지난주: 하나님의 권고: 옛길로 걸으라, 선한 길로 걸으라: 믿음의 길, 의의 길, 말씀의 길
유다 백성에게는 아직도 의지하는 구석이 있다. 그것은 성전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다.
4-7절: 길과 행위를 고치고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성전을 의지하고 있다. 마음을 고쳐야 한다.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도 동일하다. 회개가 없이 성전 건축과 치장, 외적인 쇼에만 열을 올린다.

2012년 6월 2일 뉴스앤조이 <교회 대출, 이대로 가다가 '전부 파산'>

사랑의 교회 600억! 온누리교회 400억! 안산동산교회 338억, 제자교회 227억, 새문안교회 208억,
지구촌교회 188억, 주안장로교회 130억, 인천송의교회 107억. 지난해 <시사저널>의 근저당 규모
<빛나는 교회인가? 빛내는 교회인가!>

한국교회가 1, 2차 금융권에서 대출한 금액만 9조원이 넘는다. 대출금리 6%, 매달 450억 원 이자
교회 대출이 많은 이유는 교회당 신·증축 때문이다. 은행들은 교회가 원금 상환 능력이 좋기 때문에
대출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한다.

종교개혁시민연대 사무국장: “제1금융권의 대출만 4조 원이 넘는 것은 한국교회의 비정상적인 증상이다.

목회자들이 교회당 재건축을 해야 장사가 잘된다고 생각한다. 중소형 교회들이 대형 교회를 흉내
내면서 오히려 문을 닫게 된다.”

유럽의 수많은 교회 건물들이 오늘날 술집과 상점 등에 팔린 현실과, 최근 로버트 솔러 목사가 만든
미국 수정교회가 파산한 사례에서 교회의 본질이 외형적인 것에 있지 않다는 점을 배우게 된다.

미국 '메가처치'의 원조격인 수정교회는 으리으리한 교회건물과 자동차극장형 예배, TV 설교 방송인
'능력의 시간' 등으로 한국에도 잘 알려져 있다. <불가능은 없다>, 수정교회라는 이름처럼 교회 외벽은
우리 1만664장으로 덮여 있고 내부에는 세계 최대 파이프오르간이 설치돼 있다. 2011년말 파산
<성전의 허상을 깨자>

성전 건축에 목매는 이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지어 복을 받았으니 우리도 성전을 지어야 하지 않겠는가?

성전을 향해 기도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풀리지 않았는가?

목사와 성도들의 과시 욕구, 종교 행위, 이것을 지으면 복 받는다는 생각

그런데 문제는 신약에는 구약과 같은 성전이 없다는 것이다.

성전이 나오게 된 배경: 삼하7

원래 하나님은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으라고 한 적이 없다(5-7).

다윗의 청에 따라 하게 하심: 솔로몬이 지음, 왕상5-9장, 7년에 걸쳐서(왕상6:37-38)

성전: 당시 최고로 아름다운 집, 길이 60큐빗, 너비 20큐빗, 높이 30큐빗, 27m, 9m, 13.5m

주의 궤를 성전 안으로 가져올 때 구름이 성전에 가득 차고 주의 영광이 주의 집에 가득함(왕상8:10-11).

이로써 셋째 하늘에 거하시느 하나님께서 땅의 성전에서 자신의 임재를 보여 주심

솔로몬의 봉헌 기도 내용(왕상8:22-53)

1. 다윗에게 확증하신 것을 기억하소서(왕상8:22-26). 이스라엘 왕좌에 앉을 자가 끊어지지 않는다.

2. 성전을 향한 솔로몬의 고백(8:27-30), 하나님이 땅에 거하시겠나? 그럼에도 기도를 들어 주소서.

a. 범법했을 때(31-32)

b. 죄를 지어 원수 앞에 패하였을 때(33-34)

c. 기근, 역병이 들었을 때((35-40)

d. 싸우러 갈 때(44-45)

e. 포로로 잡혀갔을 때(46-53), 이러니 신구약을 파악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잘못에 빠진다.

하나님의 약속(왕상9:2-9)

1. 다윗과 같이 바르게 행하면 약속을 지킨다(4-5)

2. 우상숭배를 하면 이스라엘을 끊어버린다(6-7).

3. 성전이 폐허가 된다(8-9).

성전의 폐해

성전을 지은 이후로 유대인들은 성전만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므로 무슨 일을 해도 될 것으로 착각함. 패망 직전에 므낫세는 주의 집에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들을 세우고 작은 숲을 세움(왕하21:3-9). 왕이 이 모양이니 백성은 말할 것도 없음.

렘7:17-19, 온 유다 사람들이 처처에서 하늘의 여왕에게 경배함, 아스다룻, 천주교회의 마리아 이러면서도 렘7:4에 있는 것처럼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하며 거짓말을 한다.

하나님의 권고(렘7:5-9)

너희 길들과 행위들을 고치라.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라, 학대하지 말라,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것이 없으면 성전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악을 행하면서도 성전을 의지하는 자들의 말(9-10)

하나님의 말씀: 내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느냐?(11)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강도의 소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실로에 행한 것 같이 이 집과 예루살렘에 행하겠다(12).

실로: 예브라임 지파에 속한 유명한 도시.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38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백성을 모아 가나안 땅을 일곱 지파에게 분배하였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여기에 주님의 성막을 세웠고(수18:1; 19:51) 언약궤와 성막은 주전 1116년경까지 즉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을 때까지 약 330년 동안 여기 머물렀다. 언약궤 거기에 있었으므로 해마다 실로에서 주님의 명절을 지켰지만 실로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멸절되었다.

이유: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부패함. 백성이 타락함.

500년 전에 폐허가 된 실로를 보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성전을 황폐하게 내버려두고 떠나려 하신다(14-15).

결국 렘10장에 가서 주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게 된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은 외적인 건물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하나님은 백성이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마3:7-12). 행위의 변화

그 이후의 성전

바빌론에서의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스룹바벨이 돌아와 성전을 세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헤롯이 46년 동안 그 당시 최고의 건물로 성전을 세움(요2:19)

유대인들은 여전히 성전 숭배에 여념이 없다. 성전에서 사고팔면서 악을 행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몇 차례 성전을 청소하심(요2:13-17).

핵심 요점: 성전에 정신이 팔려서 성전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함.

우리는 어떤가?

그리고는 여기서 더 나아가 돈독이 오른 종교인들이 성전보다 헌금 강조(마23:16-18)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마12:6).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배 장소가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열렸다(요4)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여전히 예배 장소에만 관심이 있다.

요4: 수가 성의 여인

20절: 우리는 이 산에서 경배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해야 한다고 합니다.

21-24, 이제는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때가 왔다(24절).

집 교회냐, 건물 교회냐가 문제가 안 된다.

적용

신약 시대의 예배당은 성도들이 모이는 강당이다. 미국 사람들은 예배당을 강당이라고 한다, 성전이 아니다. 제사장이 있는 데가 아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육할 수 있는 장소면 된다.

파이프 오르간 없어도 된다. 가장 싸게 부담 갖지 말고 짓든지 빌려서 쓰면 된다.

예배당에 손발이 묶여 선교와 구제와 교육을 못하면 구약의 성전이 되고 만다.

또 혹시 착각하면 안 된다.

1.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예배당에 있으면 하나님이 다 봐 주신다. No!
2. 킹제임스 성경 주 번역자가 있는 사랑침례교회 예배당에 있으면 하나님이 다 봐 주신다. No!
3. 이것을 믿는 사람은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하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다.

이 시대의 성전

구원 받은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영원히 내주하신다.

구원받은 성도 개개인이 성전이다(고전3:16-17; 6:19; 고후6:16).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우리가 성전이다.

외적인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말자. 필패한다. 그 필패의 내용이 렘7:32-34에 기록되어 있다.

결론

예배당: 필요하면 지어야 한다. 그런데 짓는 동기가 중요하다.

구약시대의 성전으로 생각하면 허사이다. 가장 값싸게 가장 편리하게 예배 처소와 교육 시설을 지으면 된다. 안 되면 빌려서 하면 된다. 더 이상 장소에 의지하는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속중심을 본다.

우리의 내적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한다. 그것이 예수 믿는 기본 이유이다.

계21:22 우리가 거할 새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성전이 없다. 하나님과 어린양이 성전이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외적인 허례허식, 걸치레를 다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나아가자.